

고교 무상급식 확대·청소년 의회교실 성과

광주시·전남도의회 결산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올 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며 '지방자치의 꽃'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비리도 처벌받고 청렴도가 추락하는 등 '비판과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 지방자치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양당 체제'를 경험한 광주시의회는 애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견제와 협력 속에 갈등 없이 의정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당은 한 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방식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협의를 통해 슬기롭게 갈등을 해결했다.

올 해 시의원들은 정례회 59일·임시회 62일 등 회기 일수 121일 동안 118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386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 본청 24곳, 직속·사업소·공사·공단 41곳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355건이 시정·처리됐다.

특히 각 기관 사이에 갈등을 빚은 광주 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 광주시·광주시교육청과 함께 광주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내면서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등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조기 대선 등 정치권의 격변 속에서 광주시의회는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호남의 바다 민심을 대변했고, 대구시의회와의 공조 속에서 달빛내륙열차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시의회, 양당체제... 견제·협력속 일부의원 비리도

도의회, 소통·협력 민생현안에 집중... 청렴도 추락

반면, 일부 의원들이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구실수도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의회** = 올 한 해 '강한 의회·신뢰받는 의회'를 목표로 민생현안에 선제 대응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화하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의 발탁으로 도정공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집행부와 소통·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 406건을 지적하고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조례 제·개정은 총 461건으로 지난해 162건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185%) 늘었다. 이 중 58.4%인 269건이 의원 발의, 의원 1명당 평균 4.7건 꼴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그동안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고, 특수학교인 목포 인성학교와 함평 영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열어 장애학생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청렴도 추락에 따른 질타와 보여주기식 뒷북 의정활동에 대해 비난을 샀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의회는 5.94점을 받아 1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에서 무려 9계단이나 추락했다. 또 무안공항 야간운항 제한 방침이 철회된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철회 촉구안을 채택해 '보여주기식 의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올 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도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었다. 사진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대 광주광역시 어린이 청소년의회'와 MOU 체결 모습. <광주시의회 제공>

올 광주김치축제, 김치 140t 판매 역대 최대

연 인원 7만명 방문

계절별 4개 마당 열려

올해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는 예년과 달리 계절별 4개 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5월에는 첫째마당 '봄&여름 우리집 새 김치 담는 날', 9월에는 둘째마당 '추석맞이 김치와 발효음식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11월과 12월에는 광주세계김치축제 본 행사와 빛고를 사랑나눔 김장대전이 이어졌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계김치연구소가 '천년의 김치'라는 주제로 시대별 김치의 모습을 재현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김치를 전시해 이목을 끌었다. 김장대전은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한 배추와 무,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전갈, 전일염 등 김치 원·부재료를 지역 김치업체에서 공급받아 지역 김치산업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김치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치명인이 직접 김수한 점일배추와 김치 양념을 매일 행사장에 제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치타운 내 조성 중인 '김치전통발효음식단지' 시설 중 다목적체험관을 조기 완공해 김치경연대회장과 김장대전 행사장으로 활용, 축제 참가자들에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장대전 판매물량이 2015년 55t, 2016년에는 106.2t에 이어 올해는 140t을 넘어섰으며, 특히 수도권 이외의 타 지역 판매량이 3t에 육박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세계김치축제가 먹고 즐기는 단순 축제에서 벗어나 농가 소득증대, 김치산업 육성, 광주김치타운을 활성화, 시민 편의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김치타운 일원에 조성 중인 김치전통발효음식단지까지 완공되는 2018년에는 관광객들이 김치타운을 찾아 김치를 담가보고 지역 김치를 사갈 수 있도록 관광코스를 개발해 광주김치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24개 전통시장 안전 점검 125건 지적

광주시는 28일 이 지역 24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전통시장 안전강화 합동점검'을 했다.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에서 광주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안전본부(각 소방서 포함), 지구구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5개 반 54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전기·가스·소방·시설물 각 분야를 점검했다. 평소 위험요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부적합한 전기·가스시설 등을 교체하도록 했다. 또 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형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 및 난방·전열기구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했다.

이를 통해 합동점검반은 총 125건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미한 9건은 현장 조치하고, 나머지 116건은 해당 상가에 개선을 권고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안 몽탄~나주 동강 국지도 오늘 부분 개통

몽송교차로~동강교차로 3.96km

국지도 49호선 나주시 동강면 몽송교차로에서 동강교차로까지 3.96km 구간이 29일 개통된다.

전남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지도 49호선인 '몽탄~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총연장 5.98km 중 3.96km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했던 구간으로 일부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5분 이상 시간이 단축돼 도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 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지도 49호선에 위치한 '몽탄~동강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은 무안군 몽탄면 당호리에서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까지 총연장 5.98km이다. 총사업비 872억원을 들여 2010년 12월 착공했다. 무안 일로~몽탄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구간이 2019년 완공되면 광주에서 남양산도시까지 5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종합등급 나등급

동구·남구 다, 광산·북구 라, 서구 최하 마등급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행정안전부가 28일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광주시·전남도가 종합등급 분야에서 나등급을 받았다. 또 자치구에서는 광주 동구·남구 나등급, 광산·북구가 라등급, 서구가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난 19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지방재정발행 여력 및 재무상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지방세 확충과 세출절감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

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정성 분야에서도 광주시와 전남도는 나등급을 받았고, 광주 동구 나등급, 남구·광산 라등급, 북구·서구 마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의 경우 대형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고 있어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균형발전,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준비 등 대형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어 재정 부담이 크어는 때보다 크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채무비율은 21.5%로 2011년 7400억 원이던 빛이 2014년 8900억 원, 2016년 95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광장 민주의 종각서 전라도 정도 천년 타종식

광주시·전남도·전북도 공동

강강술래·줄타기 공연 등 다채

2017년 정유년을 마무리하고, 무술년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 새해의 희망찬 출발을 위한 '전라도 천년맞이 타종행사'가 오는 31일 오후 10시30분부터 2018년 1월 1일 오전 1시까지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8일 "전라도 천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다가오는 천년 전라도의 도약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등 3개 시·도가 함께 하는 타종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초대형 규모의 강강술래와 줄타기 공연, 1000m 가래떡 나눔행사, 광주·전남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프

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층이 다함께 참여하는 화합과 상생의 한 마당 축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타종행사에는 3개 시·도지사, 의장, 교육감 등 9명과 시·도민 대표 15명 등 총 24명의 타종인사들이 참여해 3개 시·도 공동으로 9회 타종한다. 이어 광주시 8회, 전남도 8회, 전북도 8회 순으로 총 33회를 타종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 천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한다. 시는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행사장 곳곳에 안전요원과 구급차량 등을 배치하는 등 자치구·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당일 추운날씨를 감안해 현장에서 따뜻한 음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상품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국내여행
- 할인항공권·KTX기차표
- 하니문·단체여행
- 골프투어·기차여행

www.daewontour.com

겨울 전세열차 상품 <small>1인 이상 출발</small>	① 울산 간절곶 새해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12월 31일(일)	99,000원
	② 정동진·월정사·휴휴암 기차여행(무박 2일)	1월 05일(금)	120,000원
	③ 태백산 눈꽃축제·하이원스키장 관광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④ 정동진 일출·하이원스키장 관광 곤돌라(무박 2일)	1월 26일(금)	120,000원

정기열차 상품 <small>최소 출발인원 확인</small>	① 남이섬 자유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② 대둔산 케이블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75,000원
	③ 남해 보리암·독일마을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④ 서천 국립생태원 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⑤ 서울시티투어 기차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08,000원
	⑥ 정동진 일출 기차여행(무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20,000원

섬여행 상품	① 홍도·흑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② 울릉도·독도 여행(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③ 거문도·백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④ 청산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⑤ 백령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55,000원~
	⑥ 대마도 여행(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90,000원~

버스여행 상품	① 고령 고분군 트레킹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② 날뚝보소 밀양 버스여행(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30,000원
	③ 하이원 스키장 시즌버스 매일운행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지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후원 | **KORAIL** 광주본부 **울산광역시**